

# 曹禺의 《蛻變》 考

韓 相 德<sup>\*</sup>

---

◁ 目 次 ▷

- |                      |                     |
|----------------------|---------------------|
| I. 緒論                | 2. 否定的 人物群          |
| II. 《蛻變》의 創作背景과 時代背景 | IV. 《蛻變》의 主題 및 그 意義 |
| III. 《蛻變》 人物分析       | V. 結論               |
| 1. 肯定的 人物群           |                     |
- 

## I. 緒論

1937년 7월 7일의 蘆溝橋 사변으로 시작된 중국의 抗戰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크 나른 시련이었지만, 일반 백성 중 적지 않은 사람들도 이로 인해 多難한 역경과 고통을 받는 등의 다양한 연관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더욱이 의식 있는 지식이었다면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一身의 安慰보다는 자기 조국의 재난을 걱정하며 抗戰의 승리를 위한 길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애를 썼을 것인 즉, 曹禺는 戲劇 분야에서 자신의 주요 무기인 戲劇을 가지고 봉사코자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曹禺는 중국의 抗戰이 있기 전 《雷雨》·《日出》·《原野》 등 三部曲 창작과 열정적이고 활발한 희극 활동 및 敎學 활동에 주력을 해 오다가 抗戰이 시작되자 모든 역량을 국난을 극복하는 활동에 집중시켰다. 이 과정에서 抗戰劇 한 편을 창작하게 되었으니, 이는 曹禺가 국가를 위해 바친 애국심의 한 징표라 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의 抗戰 현실이 그에게 준 하나의 평범하지 않은 귀한 선물이라 할 수도 있다.

《蛻變》은 曹禺가 중국 抗戰時期에 쓴 유일한 抗戰劇이다. 이 작품은 다소 결점을 가진 가운데서도 대체적으로 抗戰 이전에 쓴 작품들보다 사상면이나 창작면에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등의 비평도 있지만, 그가 작

---

\* 경성대학교 중문과 강사

품에서 반영한 “애국주의 정신, 노동 인민을 열애하는 정신, 중화민족을 높여 敬仰하고 崇敬하는 정신, 민족 해방 전쟁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며 반드시 이길 것임을 굳게 믿는 낙관주의 정신, 중국이 용감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 노력으로 반드시 거둬낼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위대한 신념, 정직하고 고생을 참으며 보상을 바라지 않는 중국의 혁명적인 지식분자들이 국가의 위험한 시기에 나태함이 없이 기꺼이 분투하는 정신”<sup>1)</sup> 등은 抗戰 당시의 수많은 군중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고 하는 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평가 절하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고에서는 《蛻變》이 어떻게 창작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개괄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抗戰 중에 曹禺가 걸었던 역정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분석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 II. 《蛻變》의 創作背景과 時代背景

抗戰이 시작되기 전 曹禺는 南京의 國立戲劇學校에서 교편생활을 하고 있다가 잠시 고향인 天津에 갔는데 이 때 중국에 蘆溝橋 사변이 발발한 것이다. 그는 天津에서 일본군들에 의해 폭격을 받아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일본군의 추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天津을 떠나게 되고, 이로부터 수년간의 방랑 생활을 하면서 중국의 抗戰 현실과 그 고락을 함께 하게 된다.

우선 曹禺는 피난 중인 南京 國立戲劇學校를 찾아 香港과 廣州와 武昌을 거쳐 長沙로 갔다. 그는 長沙에 도착과 동시에 전면적인 抗戰을 위해 “강의를 하면서 또 新舞臺劇·街頭劇 연출을 맡았으며, 또 실제 공연 활동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또 병원에 가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sup>2)</sup>

당시 회극학교의 전체 師生 任職員들이 회극을 抗戰의 무기로 삼아 일본 침략자들에게 항거하고, 회극 선전을 통해 백성들이 일치 단결하자고 발표했던 〈敬告同胞書〉를 보면 당시 抗戰 사명과 회극의 책임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면, 일본인을 타도해야만 한다!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하려면, 일본인을 타도해야만 한다! 우리가 안심하고 사업을 하려면, 일본인을

1) 張慧珠《曹禺劇評》,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5), 527쪽.

2) 胡叔和《曹禺評傳》,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94), 142쪽 참조.

타도해야만 한다! …… 우리의 자식들을 앞으로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인을 타도해야만 한다. 우리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 일본인을 타도해야만 한다. 일본이 타도되어야만 우리에게 앞날이 있게될 것이다.

(我們要求生路, 只有打日本人! 我們要保護自己的妻室兒女, 只有打日本人! 我們要安心做生意, 只有打日本人! …… 我們要不使自己的兒女將來做奴隸, 只有打日本人, 我們要拿出所有的力量來打倒日本人: 打倒了日本以後, 才能有好的日子.)

우리 국립희극학교의 모든 가족이 평소에 연마한 희극은 민중을 불러 일으키고 민중을 훈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희망컨대 이렇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各地로 가서 부도형제들에게 보여 주고 대중의怒吼를 불러일으키자!

국립희극학교는 남경에서 활동을 하던 기구였지만, 우리는 抗戰이 전개된 이후, 활동의 범위를 넓혀야할 할 것이며, 특히 대도시에 국한을 시켜서는 안되고 內地 깊숙이 들어가 대중들과 접촉하는 것이 현재로서 더욱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회 공연팀을 조직하여各地를 순회하며 공연을 하게된 것이다. 지금 학교는 여전히 예전처럼 개학을 하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선전을 해야할 책임을 그만두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희극이 후방에서의 중요한 선전 도구임을 굳게 믿고 있으며, 우리 희극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분담을 하여 전면적인 抗戰 중의 一翼을 담당해야 한다!

(我們國立戲劇學校的同人, 平常所研習的戲劇, 是喚起民衆, 訓練民衆的最有力的武器. 在目前, 我們希望能用這最有力的武器, 到各地來演給父老兄弟們看, 喚起大衆的怒吼!

國立戲劇學校是在南京工作的, 我們感覺到抗戰展開以後, 有擴大工作範圍的必要. 尤其不應局限於大都市, 深入內地, 接近大衆更是目前當務之急. 因此, 我們組織巡迴演出隊到各地巡迴公演. 現在, 學校仍然在照常開學, 但我們却不願放棄我們宣傳的責任. 我們深信戲劇是後方的重要宣傳工具, 我們每一個從事戲劇工作的人都應分擔起全面抗戰中的一部分工作!)

1937년 11월 上海와 南京이 일본군에게 점령된 후,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던 武漢에서는 수많은 희극 단체와 희극 종사자들이 대거 집중, “中華全國戲劇界抗敵協會”를 결성하여 하나의 통일된 역량을 과시하게 되었던 바, 이 때 曹禺가 理事로 선임되었는데, “協會”는 성립 선언문에서 희극 종사자들이 가지게 되는 임무를 네 항목으로 나누어 적고 있다.

첫째, 抗戰이 이미 가장 위험한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연극 형태를 포함하여 전국의 희극계 인사들은 최대의 열성과 천재성을 발휘, 위대하고 장렬한 민족 전쟁을 위해 복무할 것. 둘째, 단결의 중요성을 알려서 전국의 혈기 있고 지각있는 희극계 인사들에게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계파를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한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할 것. 셋째, 희극 예술의 내용과 형식을 통일시켜 발전시킬 필요성

3) 胡叔和 《曹禺評傳》,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94) 140-141쪽.

을 알리고, 고도의 예술적 수준을 가진 완전한 희극만이 더욱 효과적으로 抗戰을 추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抗戰을 위해 복무할 때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추구하는데 신경을 쓸 것. 넷째 우리의 抗戰은 이미 전 세계가 자유를 쟁취하고 침략을 반항하는 운동의 중요한 일환임을 알릴 것.

(第一, 爲着抗戰已進入最危險階段, 全國戲劇界人士, 包括一切劇種, 應該奮發其最大的熱誠與天才爲偉大壯烈的民族戰爭服務; 第二, 指出了團結的重要, 要求全國有血性有覺悟的劇界人士, 捐除一切成見, 鞏固這一超派系·超職業·超地域的團結; 第三, 指出了戲劇藝術內容形式統一發展的必要, 在抗戰服務中應該注重對新藝術形式的追求, 因爲只有藝術高度完整的戲劇才能更有效地推動抗戰; 第四, 指出了我們的抗戰已經是全世界爭取自由反抗侵略運動的重要一環。)<sup>4)</sup>

1938년 초 國立戲劇學校가 長沙에서 重慶으로 이사를 하게 됨에 따라 曹禺도 重慶에서 敎學과 연극 활동에 주력하였던 바, 무엇보다도 뜻깊은 활동의 하나는 이곳에서의 “戰時戲劇講座”였다. 강좌는 주로 희극분야에 대한 전문가·교수,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지식인들이 강사로 참가하였는데, 曹禺는 여기서 〈編劇術〉을 강의하였다.

曹禺의 이 〈編劇術〉강의는 연극 전반에 관한 자신의 연극관을 피력한 비교적 원론적인 내용이었지만, 抗戰이란 현실에서 抗戰劇이 걸어야 할 노선과 임무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에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抗戰劇은 각 계층과 각 지역에 깊이 들어가야 하고, 환경이 다른 곳 — 때로는 도시, 때로는 농촌, 때로는 길거리, 때로는 또 준비가 상당히 잘 된 극장 — 에서 각종 공연을 해야 한다. 무대가 달라지고 관중이 달라지면 동일한 抗戰劇으로 아무 데서나 공연을 할 수 없고, 또 아무 데서나 공연을 했을 경우 그 효과도 좋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농촌에 가서 공연을 할 때 그것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 내용도 있고 또 효과를 거두었던 抗戰劇이었는데 그 결과는 실패하였다고 했을 때 그 극본은 다시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시 내에서는 이른바 “유명한 抗戰劇”이었다고 하지만, 농촌에 와서는 순간간에 그 작품이 근거로 했던 특수한 “관중”과 “무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抗戰劇要深入各階層·各地域, 要在各種不同的地方 — 有時在城裏, 有時在農村, 有時在街頭, 有時又在設備得相當完善的劇場 — 做各種演出. 因爲舞臺不同, 觀衆不同, 所以同一個抗戰劇不能到處演得, 也不能隨地演得實效. 有的同志下鄉演戲, 演的是有名的·有內容的·有失效的抗戰劇, 但結果是失敗了, 覺得那劇本非重寫不可, 因爲城市內所謂的‘抗戰名劇’, 移到鄉下, 突然失腳了它所憑藉的特殊的‘觀衆’與‘舞臺’的緣故。)<sup>5)</sup>

4) 田漢 〈關於抗戰戲劇改進的報告〉: 田本相·焦尚志 《中國話劇史研究概述》,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3) 222쪽.

5) 曹禺 〈編劇術〉: 《曹禺論劇作》,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5), 282쪽.

1937년 12월 武漢에서 “中華全國戲劇界抗敵協會”가 창립되었고, 이듬해 10월에는 重慶에서 제1회 全國戲劇節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 이에 曹禺는 宋之的과 함께 이전에 이미 창작된 바 있었던 4막극 《總動員》을 개편하여 《全民總動員》이란 제목의 抗戰 반영 극본을 가지고 참가를 하였다. 극본은 간첩과 매국노를 질책하고, 애국지사과 항일 장교를 歌頌하는 내용이었다. 급조한 탓에 “현실을 반영함에 깊이가 부족하고”, 예술 역량이 부족<sup>6)</sup>하기는 하였지만, “한간을 숙청하고 적의 후방을 전선으로 삼아 쫓겨온 동원하여 抗戰에 복역하는 것이 우리 작품의 주제였다.”<sup>7)</sup>고 말하는 작자 자신의 말이나, 공연에서 10만 관중의 심금을 울려 대단한 파급 효과를 주었다는 기록<sup>8)</sup>을 볼 때, 抗戰劇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역정과 실천이 바로 抗戰劇 《蛻變》이 창작되게 한 배경이라 하겠다.

《蛻變》은 1939년 四川 江安에서 창작이 되었는데, 抗戰 현실에 대한 다급한 열정으로 인하여 작품은 30여 일만에 급조되었다. 그래서 《蛻變》은 曹禺 극작 중 가장 단시일 내에 쓴 작품으로 꼽힌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술회한다.

당시 나는 季紫劍이라는 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썼다. 내가 일부분을 완성하면 그가 곧바로 原紙에 새겼다. 한 幕이 완성되면 공연팀에게 연습을 하도록 넘겼다.

(當時, 我讓一個叫季紫劍的學生跟着我, 我們同吃同睡, 夜以繼日地幹。我寫一部分, 他就刻一部分臘紙; 寫一幕, 交演出隊排一幕。)<sup>9)</sup>

여기서 우리는 작가가 작품을 채 다 완성하기도 전에, 쓰여진 작품의 일부는 곧바로 인쇄와 공연 연습으로 이어졌다는 상황을 보면서, 당시 抗戰劇을 통하여 관중들의 抗戰 의식 고취가 얼마나 다급했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蛻變》을 창작함에 曹禺는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작품 완성이 앞당겨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① 강렬한 민족의 의분.

작자는 蘆溝橋 사변 때 天津에 있으면서 일본군의 폭격으로 건물들은 불바다를

6) 楊海根 《曹禺的創作道路》,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8), 108-109쪽.

7) 曹禺 《黑字二十八·序》; 田本相 《曹禺文集(2)》,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161쪽.

8) 中國大百科全書總編輯委員會《戲劇》編輯委員會 《中國大百科全書》(戲劇卷),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9), 527쪽.

9) 曹禺 《“蛻變”寫作前後》: 《華東師大學報》(哲社版), 1984年 第4期, 22쪽.

10) 曹禺 《“蛻變”寫作前後》: 《華東師大學報》(哲社版), 1984年 第4期, 22-23쪽.

이루고 사람들은 죽어 길가에 시체가 뒹구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神曲》 속의 지옥”과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민족의 의분이 일었다.

② 수많은 인민들의 애국심에 불타는 열정적인 고무.

작자가 天津에 있을 때, 분노한 평범한 군중들이 白晝 대낮에 일본 병사 한 명을 때리는 용감한 모습을 목격하였고, 또 天津에서 영국 화물선을 타고 홍콩으로 갈 때, 배에 탄 男女老少들이 모두 “의용군 행진곡”과 “송화강 위에서” 등 애국의 가곡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격앙됨으로 인해 어린아이의 심령에까지 抗日救國의 불씨가 붙어 있음을 알았다. 戲劇專科學校 교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 껌잡은 생활 조건을 뿌리치고 重慶으로 와서 항일 구국 운동에 투신하였던 바, 丹尼와 佐臨 부부 같은 경우도 上海에 편안한 서양식 주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것에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와서 습기 찬 지하실에서 거거하였고, 張駿祥도 抗戰을 위해 미국에서 돌아와 그 궁핍하고 외진 벽촌에서 생활하면서 일말의 원망도 없이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 봉급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고 인민들의 애국심을 읽을 수 있었다.

③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이 준 激勵.

1937년 홍콩에서 희극전과학교를 찾아 長沙로 갔다가 그곳에서 徐特立이 “抗戰必勝, 日本必敗”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또 친 리를 멀다 않고 중국의 抗戰을 돕기 위해 찾아와 숭고한 정신을 실천으로 옮긴 외국인 白求恩의 사적 등을 통해 작가는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④ 國民黨 각 기관의 부패상에 대한 불만과 부상병 병원을 보고 나서.

國民黨 기관의 관원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 貪污와 腐敗에 습관이 되어 있었고, 抗日은 마치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오직 “抗日”을 빌미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을 보았고, 전선의 戰況이 아주 좋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당 군대가 속속 패배로 후퇴하는 것을 보았다. 天津에 있을 때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도시 이름을 애드블룬에 써서 공중 높이 띄워놓은 것을 보았는데 국민당은 2, 3일만에 하나씩 도시를 잃어 갔다. 長沙의 상당한 부상병 내부의 여러 상황들이 사람을 분노하게 하였는데, 四川 江安 劇專 부근의 한 병원에서 서도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이상이 《蛻變》 창작에 가속도를 붙게 한 요인이라고 작자는 말한다.

작품은 民國 27년(1938년) 1월 중순으로부터 民國 29년(1940년) 4월까지의 이야기로, 어느 한 작은 후방에 있는 성립 부상병 병원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曹禺는 抗戰을 위한 연극 활동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이 작품을 抗戰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며 썼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抗戰”이 소재가 되었고, 작자의 이상을 기탁함도 관중들로 하여금 일치 단결하여 對日 전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었다.

그러면 먼저 작품의 梗概를 작품의 지문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남경이 함락되기 몇 달 전, 수많은 기관들은 황급히 후방으로 옮겨간다. 이에 한 성립 후방 병원도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 명령에 따라 후방의 작은 도시로 옮겨간다.

(南京失守前數月,許多機關倉惶搬到後方來,於是一個省立的後方醫院,也隨着惶亂的人群,奉命遷移到後方一個小城.)<sup>11)</sup>

이사를 한지 석 달이 다 되어 간다. …… 얼마지 않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현지의 유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 서로 결탁을 하여 국난을 기회로 장사를 하기에 이른다. …… 이에 따라 하위직 사람들도 점차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에 습관이 된다.

(搬來幾將三整月了, …… 過了不久,上面的人開始和當地士紳往來密切 …… 做國難生意, …… 于是在下面的也逐漸懈怠,習于苟且.)<sup>12)</sup>

가난하고 편벽한 곳으로 와서는 “하늘도 황제도 멀리 있어” 병원에는 더욱 “준법” 정신이 결핍되어 있다. 원장이 사람을 고용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는 오직 자기의 일사적인 이해 관계와 희비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이 아침으로 그의 신임을 얻어 놓으면 직원이 마음대로 월권을 해도 기탄을 하지 않았고, 그의 환심을 얻지 못하면 병원에서 그러저러 먹고 살다가 죽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책임 소재를 추궁하게 되면 오히려 책망을 듣게 된다.

(搬到這個窮鄉僻壤,“天高皇帝遠”,院裏更缺乏“守法”的精神,從院長起,他用人辦事但凭他自己一時的利害喜怒為轉移,下屬會逢迎,得到他的信任,便可以任意越權,毫無忌憚:不得他的歡心的,就只能在院內混吃等死,甚至如果負起責任,反遭申斥.)<sup>13)</sup>

抗戰이 시작된 지 겨우 반 년이 지났지만, 이 작은 병원은 지금까지의 행정 기구가 가지고 있던 약점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일말의 관용도 없이 엄격하게 채찍을 가하면서 교정과 개선을 실시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抗戰只半年,在這個小小的病院裏,歷來行政機構的弱點,都一一暴露出來,迫切等待政府毫不姑息地予以嚴厲的鞭策,糾正和改進.)<sup>14)</sup>

11)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174쪽.

12)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174-175쪽.

13)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175쪽.

14)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176쪽.

양감찰관이 철저히 개혁을 한 후, …… 이로부터 지금까지 꼬박 1년 반. 병원의 행정 요원들은 구태를 벗고 새롭게 변신하여 크게 변화되었다. …… 지금 병원의 공무원들은 책임의 한계를 확실하게 하고 계통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면 상을 받고 게으르면 벌을 받게 됨에 따라 일년 안에 봉공 정신과 준법 정신, 그리고 근무에 분투하는 기풍이 벌써부터 조성이 되었다.

(經過梁專員那次徹底改革後, …… 從那時起到現在, 整整一年有半, 醫院裏的行政人員易舊換新, 變動很大, …… 現在院裏的公務人員, 權責劃清, 系統分明而且勤有獎, 惰有罰, 一年來, 奉公守法, 勤奮服務的風氣, 已經啓導造成.)<sup>15)</sup>

오랜 투쟁 중에서 이 자그마한 단체는 수많은 투쟁과 시련을 통해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고야 만다.”는 고도의 강인성을 가지게 되었고, …… 참신한 정치 풍토의 서막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抗戰 과정 중의 중국 행정관리가 하루빨리 그 썩어빠진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대로 매진할 것을 말해 준다.

(在長期的鬭爭裏, 這小小的團體, 經過千錘百煉, 他們早已獲得高度的韌性, “鏗而不舍”, …… 開始造成一種嶄新的政治風氣的先聲. 在抗戰過程中, 中國的行政官吏, 早晚必要脫掉那一層腐舊的軀殼, 邁進一個新的時代.)<sup>16)</sup>

이상과 같은 극의 스토리는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성격과 추구를 통해 진행이 되고, 그들의 사상과 활약은 작품의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주요 인물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I. 《蛻變》 人物分析

《蛻變》에는 서른 두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중 극의 진행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들은 대략 전체 인물의 삼분의 일쯤 된다. 이 인물들은 병원의 개혁 대열에 동참하여 脫舊變新을 추구하는 긍정적 인물들과, 이에 逆行하며 개인적인 욕망과 妄執에 사로잡혀 사리사욕이나 채우고자 하는 小我的 근성을 가진 부정적 인물들로 대별된다.

긍정적 인물군에 속하는 인물로는 梁公仰과 정의사를 그 대표로 들 수 있고, 이들과 같은 계통에 속하는 인물로는 謝宗奮·光行健·溫宗書·丁昌·陳秉忠 등을 들 수 있다. 또 부정적 인물군에 속하는 주요 인물로는 秦仲宜과 馬登科를 그 대표로

15)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304쪽.

16)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370-371쪽.



들 수 있고, “偽組織”과 孔秋平·範興奎 등이 같은 계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 인물을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 1. 肯定的 人物群

梁公仰은 曹禺가 《蛻變》의 주제를 가장 잘 부각시키기 위해 설정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정부가 파견한 관리로서, 부패한 한 성립 부상병 병원에 감찰관 자격으로 와서 병원을 새롭게 탄생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先進 人物로 묘사되고 있다.

고상한 인품을 가진 梁公仰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만한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全能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근면하고 성실했으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는 밀사봉공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또 관리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미 없이 항상 衣食住에 대하여 겸소한 모습을 보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나 낮은 자세로 眞率되고 진지하게 대하였다.

이런 훌륭한 인격 및 미덕 위에 그에게는 항상 민족의 장래와 抗戰의 승리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한 실천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며, 때로는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도 거침없이 해결해 내는 전능한 해결사로까지 묘사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인물이 어디 있을까 싶다.

이 梁公仰 형상은 작가가 머리 속에서 창조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생활 환경에서 이와 같은 인물 원형을 접하고 느낀 바 있어 이를 典型化시킨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抗戰 때 나는 劇專의 선생으로 있었다. 劇專이 長沙로 이사를 했을 때 하루는 한 노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연을 어쩌나 잘하는지 말을 시작했다 하면 6시간이나 한다고 해서 나도 달려가서 들어보았다. 그의 강연은 “抗戰必勝 日本必敗”의 이치에 관한 것이었다. 듣고 나서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았다.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에 그 노인이 묵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그는 없고 방에는 단지 그의 어린 근무병만이 있었다. 그들은 한 작은 방에서 같이 묵었다. 근무병은 나에게 말해 주기를 그와 노인은 같은 한 침상에서 잠을 잤는데 노인은 아직도 그에게 공부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지금 보면 사실 그렇게 신기한 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나에게 아주 큰 자극이 되었기에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얼굴이 온통 붉은 그 어린 근무병은 이제 겨우 열 몇 살로, 난 아직까지 이런 병사를 본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이런 노인을 반드시 붓으로 묘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 연로한 선생은 나에게 대단한 계시와 고무를 주었는데,

이로써 나는 《蛻變》 중의 한 인물 — 梁公仰 — 을 묘사하게 되었다.

(抗戰時，我在劇專教書。劇專遷到長沙時，有一天，我聽說來了個老頭子。講演講得很好，一講就是六個鐘頭。我也跑去聽了。他講的是“抗戰必勝，日本必敗”的道理。聽過之後，我感動極了。第二天，天不亮我就跑到這位老人住的地方去了。但已經不在了，房間裏祇有他的小勤務兵。他們同住在一間小房。勤務兵告訴我，他和老頭睡在一張床上，老頭子還教他讀書。現在看來，實在不稀奇；但在當時，給我的刺激之大，是我一輩子也忘不了的。那個小勤務兵的臉蛋通紅，纔十幾歲。我從來沒有看到這樣的兵。當時，我覺得，這個老頭子，我非寫不可。…… 這位老先生給了我極大的啓示・鼓舞。我纔寫了《蛻變》中的一個人物 — 梁公仰。)<sup>17)</sup>

이와 같은 원형을 가진 梁公仰 형상을 작품에서는 마침내 민족을 위한 유능한 戰士의 대표자로, 민족의 앞날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믿음과 희망과 용기의 化身으로, 민족의 의식과 현실을 脫舊變新하게 한 자랑거리로 승화를 시켜 놓은 것이다.

그의 진지한 생활 태도와 숭고한 정신은 큰 영향과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바, 우선 정의사가 그로 인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심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병원은 또 그의 심적 변화와 새로운 다짐으로 개혁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의사는 남편과 사별을 한 후, 지금은 17살짜리 아들을 하나 두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과 외국에서 유학을 한 후 上海에서 편안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抗戰이 시작됨에 따라 자신의 신앙에 따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해야겠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곳 부상병 병원에 투신한 인물이다. 지금은 오직 투철한 국가관에 입각하여 병원에서 의사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가고 있는데, 그의 다짐을 지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이곳에 와서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수없이 많고 비참한 일들을 봄으로써 그녀는 더욱 자신이 이 위대한 민족을 위해 죽어야겠다고, 이 후방 병원의 구호와 치료 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진력하고, 부상병 동지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들어줘야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이다.

(她來了，她受了許多折磨，看到多少慘痛的事實使她益發相信自己更該爲這個偉大的民族效死，應竭力提高一般後方醫院的救護和治療知識，減少傷兵同志不必要的痛苦。)<sup>18)</sup>

이와 같이 원대한 이상을 가진 정의사는 지식분자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의사로서

17) 張葆辛整理〈曹禺同志談創作〉，《文藝報》，1957年 第2期；《曹禺論創作》，(上海，上海文藝出版社，1985)，156쪽.

18) 田本相《曹禺文集》(第2卷)，(北京，中國戲劇出版社，1988)，227쪽.

걸어야 할 임무에 대해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병원에서 의욕에 넘치고 애국심에 불타는 헌신 정신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식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난의 어려운 상황과, 부정과 부패로 습관화되어버린 사회 현실 가운데서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실망과 고민과 회의에 부딪쳤지만 梁公仰의 모범적인 행동과 그의 지지에 힘입어 자신의 이상을 펼쳐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극본에서는 특히 그녀를 堅剛한 성격의 소유자로, 원칙 고수주의자로, 부패한 세력에 목숨걸고 대항하는 반항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지문이나 대화 등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理智의 知識 女性으로서의 剛直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상당한 병사들 앞에서, 사경을 헤매는 자식 앞에서는 눈물과 정과 사랑을 보이는 평범한 여성,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그녀는 부정과 부패로 일관하는 秦仲直·馬登科 등과 같은 세력이나 이런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챙기려는 기생충 같은 인물들에게 완강하게 맞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한다. “중국이 만일 어려움을 이기고 국면을 바꾸려면 抗戰 중의 관리들이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사가 아첨꾼 馬登科에게 퍼붓는 질타 속에서 그녀가 중요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저러 버티면서, 속이고, 대충대충 일들을 하니, 일이 당신 같은 사람들 손에만 가면 방법이 있던 것도 방법이 없어져 버려요. 나는 지금 한스러운 것은 내가 즉시 일종의 혈청을 발명해서 당신같은 사람들의 혈관에 주사하여 당신들의 마음 속에 가진 ‘개으른’ 독성, ‘느려빠진’ 독성, ‘우매한’ 독성, ‘수치를 모르는’ 독성, ‘이기적인’ 독성, ‘지나치게 똑똑한’ 독성, ‘무책임한’ 독성 등 나쁜 기질들을 완전하게 깨끗이 씻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抗戰의 앞길에 진정한 방법이 있게 될 것이요.

(數衍, 應付, 虛偽, 苟且, 事情到了你們這般人手裏, 有辦法也變成沒辦法。(忿極)我恨不得我能立刻發明一種血清, 打到你們每個人的血管裏, 把你們心裏的毒質: “懶”毒, “緩”毒, “愚”毒, “無耻”的毒, “自私”的毒, “過份聰明”的毒, “不責任”的毒, 一起洗干淨. 這樣, 抗戰的前途才真有辦法.)<sup>19)</sup>

중국의 앞날에 진정한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해 정의사는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그녀로 하여금 忘我的 경지에서 부상병들을

19)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232-233쪽.

즐겁게 돌볼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1개월동안 139회, 하루 평균 40차례가 넘는 수술을 하는 격무 속에서도 환자들에 대한 책임감과 그들을 구제하려는 고귀한 정신에 불타고 있었기에 피가 부족한 대대장 李鐵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자기의 피를 기꺼이 헌혈하였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위급한 수술을 하게 되었음에도 그녀는 우선 다른 중상병을 돌보러 가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다. 가히 감동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적인 충정도 아들의 증상이 다 완쾌되면 자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어머니로서의 이기심”이 잠시 일어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갔으나, 이것도 잠시였다. 그녀는 완쾌된 부상병들이 민족을 위해 다시 전선으로 떠나는 모습에 고무되어, 주저없이 자신의 아들을 “공동의 이상”을 위해 “위대한 조국”에 바치기로 결정을 한다.

曹禺는 이와 같이 정의사를 유능하고 숭고한 정신을 가진 완벽한 지식인 형상으로 소조해 냈지만, 이 역시 梁公仰처럼 작가가 상상으로 창작해낸 가공의 인물이나 실재하는 인물의 사적을 통해 이것을 새롭게 형상화시킨 인물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그 때, 나는 이미 白求恩이란 사람을 알고 있었다. …… 그의 事迹을 들은 후에 나는 아주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정의사의 정신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이다.

(那時候, 我已經知道有一個白求恩了 …… 聽到他的事迹之後, 我很感動, 覺得 : 一個有知識的人, 應這樣活. 丁大夫的精神就是從這裏來的.)<sup>20)</sup>

아무튼 정의사는 의사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전사로서의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작품이 밝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이는 정의사 형상을 貶下하여 그녀는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상을 가지고 원칙을 견지하면서 용감하게 전투에 임한 용사가 아니다. 그녀는 그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한 과부요, 부상병을 사랑하는 자상한 여자요, 외롭게 사는 한 여성에 불과하다.” “그는 하나의 비극을 가진 자로, 그의 몸에서 우리는 승리의 희망이나 역량을 찾아볼 수가 없다.”<sup>21)</sup>는 등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우도 있지만, 抗戰 당

20) 張葆莘整理 〈曹禺同志談劇作〉: 《文藝報》, 1957年 第2期; 曹禺 《曹禺論創作》,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5), 156쪽.

21) 《中國新文學史初稿》下卷 167面. 華忱之 《曹禺劇作藝術探索》, (四川, 四川文藝出版社, 1988), 147쪽. “對客觀的現實具有正確的認識和理想, 而又堅持原則, 敢于戰鬪的無畏的勇士. 她僅僅是一個茹苦含辛的寡母, 一個愛護傷兵的仁慈的女性, 一個孤零零的女性.” “這是一個悲

시 작품을 觀劇하는 중국 관객들에게는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梁公仰과 정의사의 긍정적인 사고와 추구에 충실한 보조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謝宗奮은 가난한 환경 중에서도 굴하지 않고 온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형상이다. 공무원 신분인 그는 국가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근무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솔직한 성품을 가졌고, 그 솔직함으로 때로는 당국의 정곡을 찌르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한다. 그는 병원을 찾아온 부상병들에게 친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 업무에 흔히 꿰뚫고 있어 실무자로서의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하고 있다. 특히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병원 원장을 “傍若無人”한 인간, “厚顏無恥”한 “獨不將軍”이라고 신랄하게 비평하는 모습에서 악을 증오하는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남경이 함락된 후로 지금까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늘 이런 귀신같은 일, 귀신같은 사람, 귀신같은 놀음이니. 抗戰은 마치 다른 사람들 일 같고, 우리는 하루내 여 기 앉아 한담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나 해 대고. 일마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소곤대다가 있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처리가 되고! …… 정말이지, 나라와 민족이 우리 같은 이런 폐물들을 키워서 무슨 좋은 점이 있겠어? 무슨 좋은 점이?

(從南京失守到現在快兩個月, 我們整天就是這種鬼事, 鬼人, 鬼把戲. 抗戰彷彿是人家的事, 我們只要整天坐在這兒談開天, 鬼畫符, 事事嚷沒辦法, 事情就可以辦好了! …… 真是, 國家民族養我們這些廢料有什么好處? 有什么好處?)<sup>22)</sup>

위의 독백은 抗戰에 임하는 기관과 구성원들의 태도가 자신의 생각과 다름에 불만을 호소한 대목이다. 여기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 포함시켜 질책을 하고 있음에 그 귀함을 느끼게 한다. 특히 그는 梁公仰이 추진하는 개혁의 뜻을 읽고 馬登科가 창고 유용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할 때 이를 과감하게 폭로하여 梁公仰의 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 준다.

光行健은 병원이 개편된 뒤에 들어온 생기발랄한 젊은 직원으로, 바깥 때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욕심을 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 유 속에서 농담을 하기도 하는 착실한 인물이다. 작품에서 이런 모습은 謝宗奮에게 이전 원장 秦仲宜의 죽음을 알리는 장면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가 호기심을 유발 시키며 상대방을 절정으로 유도하는 대화술은 수준급이라 할 만하다. 병원이 이상적

劇의性格, 在她的身上, 我們看不出勝利的希望和力量。」

22)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208쪽.

으로 개혁되고 발전되어 가는데 훌륭한 수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溫宗騫는 병원 개편 후에 부임해 온 부원장으로, 정직한 학자 타입의 공무원이다. 그는 아주 예의 바른 태도로 일을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조리 있게 해 나가는 성실한 인물로,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에 여성스런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맡은 직분은 아주 유쾌하게 잘 처리하는” 양호한 성격 특징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抗戰 현실에서 梁公仰이 주도하는 개혁에 보조를 맞추기에는 다소 능력과 수완이 부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에 대한 작자의 묘사를 보자.

긴박한 공무를 처리하는 데는 다소 추진력과 과단성이 부족한 편이다. 그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규율을 잘 지키는 좋은 관리가 될 수 있지만, 비상시기를 당해 독자적으로 예리하고 신속한 정신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직분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抗戰 관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辦起緊迫的要公，總缺少一點推動的能力和果斷的氣魄。他是和平年代一個循規蹈矩的好官，但在非常時期，獨當一面，需要劍及履及的夾利精神時，他就算不了充分盡了職責的抗戰官吏。)<sup>23)</sup>

그래서 병원에 악성 학질이 하루가 무섭게 번져 가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했을 때, 그는 그저 “객관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묘책이 없다는 소극성을 보인다. 이런 식의 발상과 태도는 梁公仰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梁公仰으로부터 “객관적인 조건! 객관적인 조건! 정말 알 수가 없군. 만약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영원히 불변한다면 온부원장은 병이 계속 퍼져 이 전선 부상병 병원이 전선 학질 병원으로 될 때까지 그냥 두겠다는 거요?”라는 질책을 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도 점차적으로 상황이 급박해지고 중지를 모아야 할 즈음에 와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梁公仰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抗戰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丁皓은 정의사의 외동아들로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나 어른스러운 면모를 가진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기개와 용감성을 가진 그는 戰地 봉사단을 결성하여 전쟁 지역을 돌면서 중국 사회 현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한 결과, 이제야 마흔에 가까운 자기 어머니까지 애국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시킬 수 있게 정신적으로 성장해 버린 상태다.

23)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320쪽.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중국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 이는 “그의 모친이 그에게 자립정신을 배양토록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는 단련을 통해 자신감과 건장한 뼈와 근육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작자는 묘사를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을 강하게 단련시키는데는 아주 단호했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배려하는데 아주 후덕한 인품을 가졌다. 특히 그가 어머니와 나누는 일단의 대화에서 그의 높은 의식 수준과 充溢한 애국 열정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다음은 그 중 가장 精彩로운 부분이다.

어머니는 저희들의 기술 인재입니다. 어머니는 반드시 정확한 세계관과 사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치 인식이 있어야 어머니의 역할을 더욱 폭넓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그래야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왔다갔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실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비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신 중국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媽, 你是我們的技術人才, 你必需有正確的世界觀念, 社會觀念, 更要緊的是正確的政治認識, 你才能够廣大地發揮你的力量, …… 你才不會爲一時的情感所左右, 你才不失望! 不悲觀! 持久地爲我們的新中國服務, 直到我們打勝了爲止.)<sup>24)</sup>

어찌 열 일곱 살짜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의심이 될 정도로 투철한 국가관과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신의 관점을 이같이 거침없이 개진하는 어린 丁昌의 모습을 보는 순간, 관객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되었을까? 가히 짐작이 된다. 丁昌을 등장시키고 또 그의 애어른 같은 의식있는 발언은 어찌면 작가가 의식적으로 중국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특별한 의도라 생각된다.

현재 梁公仰과 정의사와 같은 주도 지식인들이 국가를 위해 忘我的 자세로 동분서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니 이들 세대가 끝날 때까지도 완벽한 개혁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丁昌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이런 뜻과 사업을 이어서 추진해 간다면 분명 중국의 장래에는 희망이 있고 발전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될 것이라는 작가의 憧憬을 丁昌이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 2. 否定的 人物群

《蛻變》에서는 중국이 舊態를 벗고 새롭게 변신해 가는 동시에 또 그들의 민족 정신이 日新 又日新하는 과정을 잘 부각시킨 작품이라 했는데, 이를 위해 그 약역을

24)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273쪽.

담당한 인물들이 그 효과를 배가시켜 주고 있다.

먼저 악역의 대표자 병원의 원장 秦仲宣을 보자.

전형적인 탐관오리 秦仲宣은 중국이 危急存亡의 기로에서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는 국난을 기회로 사리사욕이나 꾀하는 悖逆漢으로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馬登科를 서무주임으로 임용, 투기를 하고 쌀장사를 하여 부를 꾀하는데만 주력할 뿐, 병원의 공무에는 전혀 무관심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아래 직원 謝宗奮에게 “獨不將軍”에 “傍若無人, 厚顏無恥”한 인간이란 조소를 받는데, 이런 비평을 받기에 충분한 인물 형상이다.

그의 직무 태만은 자신 한 개인의 나태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한 기관의 기강과 역할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모든 일을 “오직 자기의 일시적인 이해 관계와 회비에 따라 처리하는” 스타일 때문에 아첨자는 신임을 받고, 반대로 업무에 충실하고자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등의 성실한 일꾼은 책망을 듣게 된다.

특히 그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면은 병원에 약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는 약제사 陳秉忠에게 약을 절반으로 줄여서 투여하라는 지시에서 그런 특징을 잘 읽을 수 있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국가나 사회의 이상에 역행하는 어두움의 패거리들이 있기 마련이나, 이 같은 국난에 역행하는 무리들은 더욱 지탄을 받아 마땅한 바, 曹禺는 그 질책의 대상을 秦仲宣으로 하고 그의 가슴에 파격을 달아 관중들로 하여금 질타의 화살을 퍼붓게 하였던 것이다. 결국 曹禺는 그를 漢奸이 되게 한 다음 중국을 사랑하는 애국청년의 총에 맞아죽게 안배하여 그를 징벌하고 만다.

馬登科는 병원의 서무주임으로, 탐관오리의 충실한 수족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는 원장의 조카라는 신분으로 狐假虎威 하는데, 작품에서는 그를 “교활하고 ‘기만적이고’ ‘개인적이고’ ‘게으른 습성이 최고 경지에 달해 이제는 치료약도 없는’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다. 배운 것은 없으나 원래부터 聰氣를 가지고 있었기에 공명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줄달음을 칠 수 있는 대단한 수완가다. 과찬과 허풍을 헤프게 쓰느라 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부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천박함을 가릴 수는 없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재간을 건전한 방향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비극적 종말을 자초한다. 다음은 그의 종말을 앞당겨 주기에 충분한 비뚤어진 사고방식의 한 예라 하겠다.

기관에서 일을 할 때, 방법과 절차와 총명과 재간만 있으면 꼭 외국으로 가지 않아도



아주 빨리 차고 오를 수가 있지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는 한 번 출세를 해보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출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요. 잘만 하면 국장도 비서장도 가능하지. …… 그렇지 않다면 어찌 “대 시대, 변동의 대 시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在機關裏做事，我們只要有方法，有步驟，有聰明，有口才，不必一定要出洋，也一樣可以鑽得很快。特別是現在這麼亂哄哄的年月，說出頭，就出頭，弄得好，司長，秘書長就是一說。…… 要不怎么叫“大時代，變動的大時代”呢!)<sup>25)</sup>

이것이 바로 馬登科의 출세관이고, 처세관이다. 이런 의식 때문에 한 때는 원장의 비호 아래 세도를 차지하여 마음대로 월권을 하고 멋대로 나쁜 짓을 하던 그가 결국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또 출옥 후에는 “偽組織”과 의기투합하여 재기를 꿈꾸었지만, 또 그 결국에는 문란한 생활로 인해 패가망신하게 되는 바, 이는 秦仲宣의 비극적 종말처럼 작자 曹禺가 의식적으로 행악자에 대한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요, 그가 관객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안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 외에 악역 배역으로 “위조직”과 孔秋平, 範興奎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역시 梁公仰의 개혁을 가로막는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위조직”은 秦仲宣의 첩으로, 원장의 아내라는 신분을 이용, 사리에 맞지도 않는 고집과 억지를 부리며 천박하고 추악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갈등을 만들어 가는 인물이다. 한 때 창기의 경력을 가진 그녀는 병원의 재산이나 기물을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流用하고, 병원의 임직원들도 자기의 몸종처럼 생각하고 대우하는데 조금도 죄의식이나 미안함을 가지지 않는 철면피에 해당한다. 그녀는 극 발단 부분에서 병원의 침대를 流用하려다가 정의사와 격한 충돌을 보인다. 즉 추악한 권력과 불굴의 정의를 앞세운 두 사람간의 완강한 힘의 대결이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正義 앞에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극의 결국에 가서는 육신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관중 앞에 서게 된다. 역시 抗戰과 사회 이상에 역행하는 자에 대한 작자의 징계요, 저주의 산물이라 하겠다.

작품에서는 또 기록을 담당하는 孔秋平이라든가, 원장 부인의 먼 친척 範興奎 등을 안배하여, 추악한 세력 밑에서 그들의 비호를 받거나 혹은 그들의 습성에 길들여져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역시 극의 발전에 양념이 되어 연극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어둠이 있기에 밝음이 더욱 빛나고, 악이 있기에 선이 더욱 빛난다 했던가? 이들

25)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225쪽.

부정적 인물들은 梁公仰을 위시한 개혁세력 혹은 그 동조자들의 폐거를 더욱 부각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한층 빛나게 해 주는 데 역시 중요한 요소로 쓰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IV. 《蛻變》의 主題 및 그 意義

《蛻變》은 작자가 곤충들이 낡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현상을 보고, 부패한 국가나 사회도 곤충이 새롭게 변신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개혁을 통한 허물벗기를 할 수만 있다면,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이상적인 국가나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개념에서 붙인 이름이다. 물론 곤충의 허물벗기 현상을 개혁을 통해 사회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sup>26)</sup>, 어쨌든 중국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脫舊變新”을 추구한다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작자 자신이 창조해 붙인 새로운 造語라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일찍이 작가는 “蛻變”이란 두 글자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데, 여기서 그는 먼저 蛻變하는 중의 생물들은 “봄이 도래하면 잠복해 있던 어떤 활발한 생명력이 그것의 체내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자연”은 “낡은 껍질을 벗는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새롭고 유쾌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다.”<sup>27)</sup>고 하면서 이것이 《蛻變》의 주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抗戰이란 대 변동 중에 우리는 수많은 動搖 分子들과 부패한 인물들이 갈수록 몰락의 길로 치닫는 것을 목도하였다. 우리는 더욱 즐겁게 새로운 역량을 희망했던 바, 새로운 생명이 어려운 투쟁 중에 이미 뿌리를 내려 자라면서 아름다운 싹을 틔웠다. 이렇게 피와 땀으로 쓰여진 역사 속에는 悲壯하고 침통한 事實들이 수없이 많다. 이 사실들은 우리 민족 전사들이 각 분야에서 분투하고 고생하는 모습과 또 도래될 부패 계층이 末路에서 부르짖는 비명을 심도있게 말해준다. 여기에는 모종의 “인내”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모진 마음의” 艱難辛勞와 영광의 혁명 투쟁인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 한없는 용감성을 발휘, 이를 보호 유지시키고 양성시켜야만 한다. 그 이전의 나

26) 沈蔚德 〈回憶《蛻變》的首次演出(節錄) — 兼論關於《蛻變》的評價問題〉: 王興平·劉思久·陸文璧 《曹禺研究專集(下)》(中國當代文學研究資料), (北京, 海峽文藝出版社, 1985), 1013쪽 참조.

27) 曹禺 〈關於“蛻變”二字〉: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9), 425쪽.

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질책하고 배격·규탄하여, 각종 세력을 통해 억압 금지시키고, 이런 사람이나 이런 유해한 의식은 “죽음”으로 끝을 내 줘야 한다.

(在抗戰的大變動中，我們眼見多少動搖分子，腐朽人物，日漸走向沒落的階段。我們更歡喜地望出新的力量，新的生命已由艱苦的鬪爭裏醞釀着，育化着，欣欣然發出來美麗的嫩芽。這一段用血汗寫成的歷史裏有無數悲壯慘痛的事實，深刻道出我們民族戰士在各方面奮鬥的艱苦同那被淘汰的腐爛階層日暮途窮的哀鳴。這是一段需要“忍耐”但更需要“忍心”的艱苦而光榮的革命鬪爭。我們對新的生命應無限量地拿出勇敢來扶持，培植：對那舊的惡的，應毫不吝情，絕無顧忌地加以指責，怒罵，掄擊，以至不惜運用各種勢力來壓禁，直到這幫人，這種有毒的意識“死”淨了為止。)<sup>28)</sup>

라고 하여 작자는 “脫舊” “變新”시킬 대상과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이어서 그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길, 《蛻變》은 “우리 민족이 抗戰 중에서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한다’는 기상을 상징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극본의 주제.”<sup>29)</sup>라고 지적하였다.

작품은 분명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新舊의 투쟁을 중심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는데, 총 4막 중 앞 1, 2막은 주로 후방 부상병 병원의 어둡고 부패한 현상을 폭로하는데 역점을 두고, 뒤의 3, 4막은 병원이 개혁을 통해 새롭게 변모된 모습을 표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結構 때문에 앞 두 막은 어둡고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무대 분위기를 보여주고, 뒤의 두 막은 밝고 시원시원하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특히 작자는 부패한 역량이 새로운 역량이 승리하는 바를 묘사하고 관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긍정적인 인물들 중 梁公仰·정의사·丁昌 등의 입을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유감없이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작품 속 인물들이 다소 이상화되어 있고, 현실성과는 괴리가 있는 개념화된 인물로 표현되었다고 비평을 하기도 하지만,<sup>30)</sup> 어쨌든 중국 抗戰시기, 어려운 환경 중의 백성들에게 단합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장래에 희망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抗戰劇로서는 손색없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래서 洪深은 “반드시 읽어야 할 抗戰戲劇” 10편을 추천한다면 바로 이 작품을 그 중의 하나로 추천하겠다고 하였으니<sup>31)</sup>, 이는 바로 《蛻變》이 抗戰劇으로서 성공했다는 것을

28) 曹禺 〈關於“蛻變”二字〉: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9), 425-426쪽.

29) 曹禺 〈關於“蛻變”二字〉: 「我們民族在抗戰中一種“脫舊”變新的氣象. 這題目就是本戲的主題。」(田本相 《曹禺文集》 第2卷, 426쪽.)

30) 華忱之의 《曹禺劇作藝術探索》, (四川, 四川文藝出版社, 1988), 151쪽.

31) 洪深 〈抗戰十年來中國戲劇運動和教育〉, 「如果我們打算推薦十部必須閱讀的抗戰劇本的話——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방증이라 하겠다.

曹禺가 작품을 통해 중국이 가진 낡고 못된 것을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하여, 또 새로운 “역량”과 “생명”을 구가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또 중국의 장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안겨주고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는 인물들의 성격 특징과 추구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작품의 주제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지만, 설교적이고 교육적인 대사와 지문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부분도 적지 않다. 예컨대 정의사가 “나는 우리 중국이 희망이 없다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용감한 병사들이 많고, 이렇게 희망에 찬 청년들이 많고, 이렇게 믿음직한 백성들이 많으니 말이다!”<sup>32)</sup>라고 하여 밝은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개혁 대열에 동참하는 예가 그렇고, 나이 열 일곱의 丁晶이 부패한 관리들은 “일시적이고 또 극소수”라고 확신하면서, 부패한 모습의 “한 특수한 현상만을 보고 보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며”, 그렇게 되면 “실패주의자들에게 이론적 근거를 주기 쉽다.”<sup>33)</sup>고 말한 예가 또 그렇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의사가 부대로 복귀하는 병사들에게 고무되어 자기 아들을 전장으로 보내지 않겠다던 이기심을 버리고 다시 전선으로 보내기로 결심하고, 병사들 앞에 서서 열변을 토하는 고별사는 그녀가 가진 숭고한 정신의 총결이기도 하지만, 抗戰에 동참하여 고통과 역경 속에서 고생하는 관중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이기도 하다.

동지들이여, 이번 우리들의 抗戰은 5천 년 역사에도 없었던 신성한 전쟁이며, 우리의 적군도 역시 유래 없이 강하고 흉악한 적군입니다. 이런 신성한 抗戰은 중국 역사상 처음이며, 어쩌면 또 최후의 일전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안목도 없이 분투와 생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대손손은 곧 영원히 零落(零落)할 것이며 다시는 일어설 기회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 우리는 영원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상적이고 새로운 사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 동지들이여, 그대들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숭배하는 영웅들인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서는 승리를 하고, 경제와 정치면에서는 모두 대책을 마련하여 도처에 참신한 젊은 기상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희생을 통해 피와 땀을 흘리고,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아내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 민족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그 공로인 것입니다! ……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시 떠나야만 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모범적인 행동을 보고도 어찌 이 작디작은 자신만 생각하고 내 아들이 가져야 할 권리를 주지 않을 수 있으며, 그가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것을 재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이여 …… 우리 서로 아끼고

如果自己限制數目，不使超過十部的話。」(《洪深文集》第10卷，234쪽)

32)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北京，中國戲劇出版社，1989)，272쪽.

33)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北京，中國戲劇出版社，1989)，272쪽.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영원히 여러분의 동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 여러분들 앞에서 난 지금 맹세합니다. 내 아들도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우리 조국에 바치겠다고!

(同志們, 我們這次抗戰, 是五千年來從來沒有過的神聖戰爭, 我們的敵人, 也是從來沒有過的強暴敵人. 這樣神聖的抗戰, 在中國歷史上, 是第一次, 恐怕也是最末一次了. 生在這個時代的人, 再毫無眼光, 看不出奮鬥圖存的重要, 我們的子子孫孫, 就會淪落到永世也不能翻身的地步. …… 我們就永遠打定下, 自由和平, 一個理想, 新社會的基礎. …… 同志們, 你們才真是我所崇拜的英雄. 現在軍事勝利, 經濟政治都有辦法, 處處都是嶄新的青年氣象, 這都是你們犧牲血汗, 一次再次地拋妻別母, 爲着民族的生存, 艱苦奮鬥的功勞! …… 現在你們又要走了! 我看見了你們的榜樣, 我怎么能够再顧念到一個小小的自己, 不給我的孩子他應該得到的權利, 不催他跟你們一道走呢! 朋友們 …… 讓我們相親相愛地活下去吧! 我希望我永遠配做你們的同志. …… 在你們面前, 我現在立誓, 把我的孩子也獻給了我們共同的母親 — 我們的祖國!)<sup>34)</sup>

막이 내리기 바로 직전, “햇빛 아래서 이 환난을 겪느라고 머리가 이미 반백이 되어 버린” 정의사가 “슬픔과 걱정을 가졌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을 보이면서 하는 《蛻變》 최후의 독백은 이렇다. “중국, 중국, 년 강해야만 하느니라!”

曹禺는 바로 이 한 마디로 자신이 기탁하고자 하였던 작품의 주제를 더욱 함축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蛻變》은 창작면이나 사상면에서 새로운 개척 내지는 새로운 진보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다. 물론 “《原野》로부터 《蛻變》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을 《雷雨》나 《日出》에 비교해 보면 작가의 창작면에서 뚜렷한 후퇴를 보인다.”<sup>35)</sup> 고 평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曹禺가 抗戰 이전에 쓴 《雷雨》나 《日出》 같은 작품에서는 “주로 봉건 자산계급 가정의 정신과 도덕의 타락, 도시 사회생활의 죄악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것”이었으나, 《蛻變》에 와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抗戰의 새로운 형세에서, 抗戰 초기 다소 낙관적이고 회망적인 표현 현상과 인민 대중들의 항일 열조”에 크게 고무되어 작품이 《日出》에서와 같이 그렇게 “새로운 혈액, 새로운 생명”에 희망을 기탁했던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희열의 심정으로 무대 위에 직접 ‘새로운 역량과 새로운 생명’의 화신을 그려냈다.<sup>36)</sup> 는 평가는 작품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34) 田本相 《曹禺文集》(第2卷),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9), 420-421쪽.

35) 《曹禺的戲劇藝術》, 61쪽. 「從《原野》到《蛻變》, 比較《雷雨》·《日出》, 是劇作家創作道路上一個明顯的倒退」華忱之, 《曹禺劇作藝術探索》, (四川, 四川文藝出版社, 1988), 152쪽.

36) 華忱之 《曹禺劇作藝術探索》, (四川, 四川文藝出版社, 1988), 152쪽.

## V. 結論

우리는 이제까지 조우가 《蛻變》을 창작하기까지의 歷程과 아울러 작품의 창작 동기 및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 고찰을 통해 우리는 《蛻變》이 가지는 그 의의와 또 曹禺가 걸어온 회극 창작노선에서의 또 다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었다.

曹禺는 抗戰이라는 어려움에 처한 조국의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戲劇이란 자신의 본업을 주요 무기로 삼아 항전의 승리를 위해 진력하였던 바, 특히 항전 당시 인민들의 역할을 집중시키고 항전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蛻變》을 창작하게 되었음에, 여기에는 국가의 아픔과 작가의 애국심이 함께 융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품에서 작자는 당시 국난을 기회로 하여 사리사욕을 꺾고 자신의 안일만을 꾀하던 부패한 자들을 규탄 징계하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 분골쇄신 동분서주하는 애국 지식분자들의 추구하고 노고를 歌頌하면서, 중국의 밝은 미래를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밝은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끈증이 낡은 겹질을 벗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이 미래가 있고 밝은 희망이 있는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패하고 어두운 현실을 타개하고 개혁하는 고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외친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대로 작품이 급조된 탓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평을 받기는 하지만, 抗戰劇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고, 당시 관객들에게 주었던 고무 작용은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요소라 하겠다.

그러나 《蛻變》은 창작 후, 공연을 하려는 순간부터 國民黨과 共產黨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바, 민감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 공연이 금연되는 일이 있기도 하였고, 항전이 끝난 이후에도 조우의 정치 성향과 작품의 의의에 대하여 공산당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면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따로 심도있게 연구해볼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

## 【參考文獻】

- 曹禺 《曹禺論劇作》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5  
 田本相 《曹禺文集》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8

- 田本相 《曹禺傳》 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1988
- 田本相 《曹禺劇作論》 北京，中國戲劇出版社，1981
- 田本相，胡叔和 《曹禺研究資料(下)》 (中國現代文學史資料匯編) 北京，中國戲劇出版社，1991
- 胡叔和 《曹禺評傳》 北京，中國戲劇出版社，1994
- 華忱之 《禺劇作藝術探索》 四川，四川文藝出版社，1988
- 楊海根 《曹禺的劇作道路》 上海，上海文藝出版社，1988
- 張慧珠 《曹禺劇評》 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1995
- 孫慶升 《曹禺論》 北京，北京大學出版社，1986
- 黃會林 《中國現代話劇文學史略》 安徽，安徽教育出版社，1990
- 陸葆泰 〈理想的光芒發自客觀現實生活中間——關於話劇《蛻變》理想因素的認識〉：華東師範大學學報，1984，第4期
- 王興平，劉思久，陸文璧 《曹禺研究專集(下)》 (中國當代文學研究資料) 福州，海峽文藝出版社，1985
- 中國大百科全書總編輯委員會《戲劇》編輯委員會 《中國大百科全書》 (戲劇卷) 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89

### 【中文提要】

曹禺發表三部曲之後，他在1939年再創作了一部話劇。這是他在中國抗戰期間中寫出來的著作。

作者抗戰之前，在南京的國立戲劇專門學校裏任教。但是抗戰以後，跟着中國現實的變化和要求，流浪到不少地方，進行積極參與演劇活動和教學活動，以及戲劇創作活動。在抗戰中，他自覺地用戲劇作武器服務於抗戰現實的鬭爭。在國難之中，他得到的最大所得，可以說是《蛻變》的創作。

這部抗戰劇，是他爲了抗戰勝利，獻給祖國中國的高貴的憂國劇作，也是祖國現實給曹禺的非凡的禮物。

作者通過《蛻變》表現出來抗戰初期一個後方省立病院由腐敗轉化爲健全的過程。特別是《蛻變》發揮了鼓舞抗戰，打擊暗黑腐朽勢力的戰鬥作用。

曹禺爲了突出作品的主題，安排賢明的新官吏梁公仰，以忘我的崇高的精神服務的丁大夫，以及謝宗奮·光行健·溫宗書·丁昌·陳秉忠等等的正面人物，表現出作者的“脫舊變新”的理想和憧憬。

作家以濃厚的筆墨歌詠了新的力量和新的生命，特別他爲了突現這種願望，按

排秦仲宣·馬登科·“偽組織”·孔秋平·範興奎等反面人物形象。作者集中地揭露他們貪官污吏的追求和腐敗現像，分明地表現出作品主題：“中國，中國，你是應該強的！”

**【主題語】**

中國話劇，抗戰，抗戰劇